

지역 소식통

부안군,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추진

부안군은 노후슬레이트의 석면비산으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나아가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1년간 총사업비 61억원을 들여 슬레이트 2205동을 철거했으며 올해 사업비 12억원을 확보해 326동(지붕면적 26동)을 대상으로 슬레이트를 철거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건축물이 대상이며 주택은 최대 700만원, 비주택은 540만원 주택 슬레이트를 철거한 부분의 지붕 개량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초과금액 발생 시 본인 부담하게 된다. 해당 사업은 위탁업체가 직접 철거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개인이 철거 후 보상을 신청하는 절차가 아닌 유의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건축물 소유자가 슬레이트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설명절 및 22대 국회 의원 선거 대비 특별감찰 강화

고창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일전 4월 9일까지 공직자의 공직기강을 위해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훼손 행위, 선거철 복무위반 및 품의훼손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설명절 금품 환수수수금지,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공무원의 선거 관련 SNS활동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실수로 인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사례가 되지 않도록 관련 교육도 병행한다.

또한, 군민 모두가 공직선거비리에 대한 내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망을 고창군 홈페이지메너를 통해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연결하여 운영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올해도 시민중심, 으뜸정읍 실현”

이학수 시장 “시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주력”

“늘 그래 왔듯 올해도 ‘시민중심, 으뜸정읍’을 위한 노력과 혁신과 포용, 소통과 참여, 공정과 신뢰라는 핵심가치 실현을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학수 시장은 15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성과와 올해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성과로 △동학농

민혁명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 개최로 동학농민혁명 세계사적 위상 제고 △정읍형 공공배달앱 성공적 정착 △연 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4182명에 안정지원금 50만원 지급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2등급 달성 △6개 기업유치, 440여개 일자리 창출 △한파대응 에너지 특별지원금 지급 △

서남권 추모공원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농촌인력난 해소 위한 해외 지자체 업무협약 △빛꽃·빛빛·구절초축제 등 지역 행사 정상화 등을 꼽았다.

이 시장은 “이와 같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한마음이 돼 큰 힘과 열정을 보내주신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성과는 정읍이 합쳐져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장은 희망차고 새로운 정읍으로 거듭나기 위한 목표로 6개의 주요 과제를 꼽았다.

주요 과제는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미래로 나아가는 희망경제 △시대를 선도하는 문화·관광도시 △시민이 만족하는 행복한 복지도시 △희망으로 미소짓는 농생명의 첨단 산업도시 조성 △사람 중심 도시기반 확충으로 도시경쟁력 제고 △시민이 함께하고 공감하는 소통행정 등이다.

이 시장은 “올해는 민선 8기 시장의 순항을 위해 본격적인 가속을 붙이는 중요한 해”라며 “7만 1700여 공직자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지혜롭게 헤쳐나가 여의주를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학수 시장은 15일 신년 기자회견담화를 열고 지난해 성과와 올해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인구유입 ‘전입장려금 제도’ 본격 시행

고창군, 전입 세대원 15만원 중·고생 최초학기 20만원 등

고창군이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유입을 늘리기 위해 ‘전입장려금 제도’를 본격 시작한다.

15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입장려금은 고창으로 온 주민들에게 지역 정착 동기를 부여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또 장려금을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1일 이후 전

입한 주민이며 전입 세대원, 전입 중·고등학생, 전입군인, 전입 유공기관·단체·기업체를 지원한다.

전입 세대원 15만원, 전입 군인 20만원, 전입 유공기관·단체·기업체 지원금은 전입실적에 따라 50만원~200만원을 지원한다.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가 해당된다. 특히 전입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하면 즉시 신청이 가능하며 최초학기 20만원, 이후 학년당 10만원

을 지급한다. 지급 신청은 전입신고 후 6개월 경과 또는 즉시(전입 중·고등학생) 주소지 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주민등록과 거주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지원금을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고창군청 인구정책팀 강만수 팀장은 “전입 장려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전입지원 시책을 통해 전입을 적극 유도하고, 인구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보건소, 금연클리닉 상시 운영

정읍시 보건소는 새해 금연을 결심한 흡연자들을 돕기 위해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금연클리닉에서는 일산화탄소 측

정과 니코틴 의존도 검사 등을 통해 건강 상태를 점검받을 수 있다. 또 전문 금연 상담사와 개별 맞춤 상담을 진행해 금연증상에 따른 대처요령을

배울 수 있다. 이외에도 니코틴 패치, 니코틴 껌, 니코틴 사탕 등 금연 보조제와 은단, 구강청결제 등 행동 강화 물품도 제공한다. 희망자는 시 보건소 금연클리닉(☎063-539-6132)에서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행정불편 최소화 만전 기해야”

심덕섭 고창군수 “행정데이터 전환작업 따른 군민홍보 등 노력”

심덕섭 고창군수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준비에 따른 행정 절차를 착실히 수행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를 통한 자동차세 연납 ‘신규 신청’의 경우 고창과 전북은 17일 오후 6시부터 21일 오후 10시까지 신청이 중단된다. 이미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했거나 올해 미리 연납 신청을 한 경우에는 17일 오후 6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납부가 제한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행정정보시스템 전환작업으로 군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방송, 언론보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며 “중요한 민원서류는 미리 발급 받아놓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15일 심덕섭 군수는 스마트행정회의를 주재하며 “각 부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18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종 행정데이터 전환작업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군민홍보 등에 노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128년 동안 사용해온 전라북도라는 이름은 지워지고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명칭으로 주민등록부터 도로명 등 250억 건의 방대한 코드가 한꺼번에 변경된다.

따라서 고창군은 물론, 전북지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17일 오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사용이 제한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산림분야 직접일자리 참여자 모집

정읍시가 산림분야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모집분야는 △산사태현장예방단 △공공산림가꾸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도시녹지관리원 △숲길체험지도사 △숲생태관리원 등 7개 분야 총 64명이다.

모집기간은 오는 17일까지이며, 응시 자격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정읍에 둔 18세 이상이다. 단, 최근 3년동안 2년 초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반복 참여자는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일자리 분야별로 응시자격과 기간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는 참여자 선발 시 취업보조대상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선발할 계획이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주 5일 근무원칙이며 작업별·시기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산물 발생과 소나무재선충 등 산림재해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치매안심센터, ‘찾아가는 기억력검사’ 확대 실시

정읍시치매안심센터는 치매검진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기억력 검사를 읍·면·동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치매안심센터는 올해 읍·면·동에 위치한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등과 연계해 센터 방문이 어려운 6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억력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치매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군은 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전문의상담)

후 협아병원인 정읍아산병원, 정읍한국병원에서 감별검사(알츠하이머, 뇌영상촬영)를 실시하게 된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일 경우 감별검사를 일부 지원한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기억력 검사를 받고 싶은 시민은 언제든지 치매안심센터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가까운 기관을 찾으면 무료로 검사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